

全氏五大綱領

上奉祖先
下育後生
相互親睦
不計其功
不謀其利



全氏宗報

2010 (환성군 2028)

6월 28일 (월)

제81호 (속91호)

宗務指標

和合團結
信賴造成
言行一致
親切奉仕

발행 : (사) 전씨중앙종친회 / 발행인 : 全永鐸 / 편집주간 : 全遇學 ☎ 130-867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47-1 / TEL : 3293-2725 FAX : 3293-5799
http://www.jeonc.org / 인쇄처 : 전통족보문화사 / TEL : 738-2114 (청량리동 50-1)

제59차 대의원회 결산총회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승인 총액 3억4천2백57만9천3원



◇ 제59차 대의원회 결산총회

지난 3월 30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송인재 2층 회의실에서 2009년도(제29기)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한 제59차 대의원회 총회가 재적 82명중 43명(52.4%)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 되었다.

태영간사의 성원보고에 따라 개회 선언되고 국민의례에 이어 載範의장은 인사말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임석하여 주신 永鐸회장님과 집행부의 참석을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은 배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였으리라 믿으나 진지한 검토를 바라며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한 흔적을 살펴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채무상환에 크게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전 종인은 힘 모아 종친회 발전을 도모하고 전씨 5대강령을 준수 실천할 것이며 바쁜 일정에 참석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발전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永鐸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은 매우 추운 한해였으며 먼곳에서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통한 채무상환과 종친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잘못된 점도 있을 듯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빈다”고 말하였다.

東明감사는 감사 보고에서 지난 3월 31일 2009년도 제29기 법인 및 일반회계 업무 감사를 정관 제1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다음과 같이 내부 지적사항을 보고하였다.

1. 기본 재산 목록과 등기부 등본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할 것을 촉구.
2.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이 대한석탄공사에 30년 기한으로 근저당 설정이 1994년 3월 24일 기간 만료되었으니 즉시 설정 해지 조치.
3. 화재보험 가입액 저조.
4. 각종계약서 계약 철지.
5. 비품 및 도서대장 비치 정확한 활용.
6. 각종 시설 안전관리에 철지를 기하고 있음.
7. 자립대출금 약정 만료에 따른 재계약 필요성.

위와같은 지적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 보완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보고 할것을 요구하였다.

제1의안 : 2009년도 법인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구하였다.

濟國사무국장은 제안 설명 유인물에 의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75,098,857원이 절감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심의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2의안 : 전씨대동보 편찬 간행의견을 상정하고 제3차 대동보는 4개로 분리 되었으나 이번 제4차 대동보는 명실공히 18과 모두가 참보하는 대동보로 이루어질 것을 결의하고 족보편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제4차 대동보 편찬 준비위원회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명판사다.”



全氏중앙종친회장 全永鐸

우리도 이런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1930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때 미국은 대공황으로 경제가 더욱 나빠져 모두 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한탄할 때였다. 어느 겨울밤 한 할머니가 뉴욕 즉결법정에 섰다. 이 할머니의 사정은 이렇었다. 사위는 실직하여 집을 나가버리고, 딸은 병이 들어 고생중이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다못해 빵집에서 빵을 들고 나오다 붙잡혔던 것이다.

판결은 이렇게 나왔다.

그 당시 판사는 할머니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내게 벌금10달러, 법정의 뉴욕 시민들에게 벌금 50센트씩을 선고한다.”

그리고는 모자에 10달러를 넣어 방청석에 돌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50센트씩 벌금내기에 동참하여 금세 57달러 50센트가 모자 안에 담겨 돌아왔다.

판사는 모아진 돈에서 할머니의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할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이 판사가 뉴욕 시장을 세 차례나 지내고 공항 이름으로 남은 피오렐로 라파디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판사가 많이 나온다면 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뉴욕 형사간이법원은 그렇듯 1년 365일 밤낮으로 재판과 보석 심사를 한다. “잡들지 않는 도시(뉴욕)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이 법원이 내건 모토다.

필자도 수년전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가방 채 잃어버리고 보니 많이 당혹스러웠다. 곧 경찰서에 신고가 됐고 간단한 재판을 받게 된 경험이 있다. 미국은 그런 간단한 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우리나라도 소액사건 심판제라 하여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민사소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송액 2천만원 이하의 소송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 판사는 물론 소송 당사자들에게도 모두 좋은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원은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도에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을 통해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년 동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항상 일에 쫓기며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서민들에게 일을 해야 하는 낮시간에 소송을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법원은 그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야간 개정제도를 도입하며 소액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2면에 기사 계속〉

공지사항

1. 이문동 시조공 재실 송인재 및 비각 훼손 상태가 심하여 2,500만원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2. 청량리 전씨회관 누수부분 수리비에 1,200여만원이 소요되었다.
3. 청량리 전씨회관 구입 당시 10억원의 부채 상환을 위한 발전 기금 모금 총액 236,850,000으로 농협 채무변

제를 하였는바 현재 2억2천만원이 남아 있어 조속 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대의원 및 임직원 발전기금 미납한 분에 대한 안내장 발송으로 협조를 요청토록 의견 일치를 보았다.
3. 대전 뿌리공원 문화축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4월17일)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1면에 기사 계속>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한 곳 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취지들이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 서민들의 사정을 헤아린다면 법원은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건들을 처리해서 좋고, 우리 서민들 또한 소송이라는 힘든 일을 치러내며 이중고를 겪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소액재판을 재판 없이 해결할 순 없을 까?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우리나라의 2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이 민사 소송의 90%에 달하는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판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 같다.

법을 통한 처결을 위해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리라. 이는 서로에게 양보와 이해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이다.

일본 사람이 한번 소송을 할 때 한국인들은 150번을 한다고 한다.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한다. 재판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한다. 또 판사도 화해할 수 있도록 원고, 피고 모두를 아우르며 유도해 나가며, 좋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하는 방법이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 재판 이야기는 2010년 4월 5일에 조선일보 만물상 '야간재판'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나는 아침에 4가지의 신문을 본다. 신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운다. 신문은 나의 친구요, 나의 선생이다. 우리나라에 이 같은 좋은 내용을 담아내는 신문이 있기에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접할 수 있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나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사회에 부끄러운 것이 한이었다. 그런데도 올해 1월 MBC에서 알파색채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취재한다며 찾아와 며칠을 고생한 적이 있다.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방송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고 나니 부끄러울 뿐이다. 알파색채를 50년 가까이 경영해오며 고생을 참 많이 했다.

미술계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공부를 해가며 사회에 공헌하려 했던 흔적은 남겨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알파색채가 존재하는 한 더욱 연구하여 우리 미술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려 한다.

第59次 대의원 정기총회 인사



대 의 원 회 의 장
全 載 範

1.公私多忙 하신데도 불구하고 第59次 代議員 定期總會에 성원을 이룩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석하여 주신 회장님을 위시하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2.오늘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송부된 결산서를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장은 여러분께 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되어온 경제불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第9期 출범부터 그 성과가 현저합니다.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第8期(2005~2007)에서는 매년 900여만원의 판공비를 집행해 왔는데, 第9기에 와서는 2008년도에 400만원, 2009년도에는 230만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결산서 22P 참조) 그리고 이외에도 지출을 줄이고 또 줄이는 건축재정 운영으로 주요예산(운영비, 사무비, 판공비)의 40%를 절약하였습니다.

이 결과 장호원 농협 대부금도 대부분 상환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위시해서 여러 대의원님, 그리고 전국 여러 종인님들의 물심양면의 협조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종인 모두는 더욱 더 단결하여 종약 5대 강령을 준수 이행하여 선조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종친회가 무궁하게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3. 끝으로 회장님을 위시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종친회 빛없이 차기로 넘겨줄 것을 기약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30.
전씨중앙종친회
대의원회 의장 全 載 範

제4차 대동보편찬 준비위원회 개최



◇ 제4차 대동보편찬 준비위원회 광경

全氏대동보는 1991년 제3차 全氏대동보 辛未譜가 편찬 발간된 바 있으나 편찬 당시 제반사정에 의하여 18派가 모두 참보를 못하고 3개파로 나누어져 수보를 하였는바 이번 제4차 대동보는 18派 모두가 참보하는 명실공히 全氏대동보가 될수 있도록 사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全敬遇회장 취임이후 天安派와의 합보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8차에 의한 종사연구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통합보 성취를 위한 난제조울 시안을 작성하고 협의를 거듭하였다.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의 혼인이 허용되며 종통유지를 위협하는 유산 상속

제등 급변하는 사회변혁에 대비하고자 족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한 연대가 생존하는 때 대동보를 편찬하여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全氏중앙종친회에서는 지난번 이사회, 대의원회등의 결의를 거쳐 오늘 2010. 5. 25.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47-1 4층 전씨회관에서 제4차 대동보 편찬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족보 편찬의 거보를 내디딘다. 위촉된 11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遇學상근부회장의 사회에 따라 위원장 龍採, 간사 進燮 중인을 선정하고 龍採위원장에 의해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

해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대동보 편찬에 관한 기본방침, 목적, 편찬내용등을 간략히 짚어보고 다음달 소위원회에서 대동보 편찬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안 초안등을 작성 협의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제4차 대동보 편찬 준비위원회>

- ▲위원장 : 龍採
- ▲간 사 : 進燮
- ▲위 원
- 정 선 : 濟國, 燦澤, 泰碩
- 옥 천 : 遇民, 北烈
- 옥 산 : 錫俊
- 성산군 : 東昱
- 완 산 : 台永
- 천 안 : 漢權
- <소위원회>
- ▲위 원 : 龍採, 進燮, 東昱, 台永

뜻을 생각하며 (2010. 4. 25) **마음의 꽃다발** (천안함 추모가) 전석환 작사 전석환 작곡



마음의 꽃다발을 누구에게 바-칠까 나라위해 목숨을바친



그대앞에 - 바치리 라 일편단심 영원한조국 필승 함대



선봉이되어 백령도 파도속에 산화한그대 겨레의 가슴깊이



간직하리라 마음의 꽃다발을 당신앞에 드립니다



젊은꿈을 바다 에던진 당신앞에 드립니다.

천안함 영웅들을 추모하며, "볼음도(豊音島)"에서

한천서원 춘향 봉행 대구 행정리에서 유림 주관



◇ 한천서원 춘향 봉행 광경

지난 4월 23일(음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반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에 소재한 고려개국공신 二忠公(충렬공 휘 以甲, 충강공 휘 義甲)을 모신 한천서원 충절사에서 옥천과 행정 문중이 주관하는 유림 행사에 도포에 유건을 쓴 유림 30여분과 중앙중친회 遇學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후손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李承穆 집례의 창홀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제례가 진행되었으며 고려개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팔공산 동수대전의 역사적인 사실과 팔공산을 조망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더듬으며 머리 숙여 경건하게 거행되었다.

대구지구 중친회의 수년간에 걸친

한천서원 정화 노력으로 달성군의 지원을 받아 담장을 건축하고 화장실을 건축 중이다. 이제는 문화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에 따른 조정 등 재정비가 요구된다.

〈한천서원 춘향집사 분정기〉

- ▲초헌관 : 金熙睦 ▲아헌관 : 趙昌來
- ▲중헌관 : 李秉玉 ▲집례 : 李承穆
- ▲축 : 都鍾萬 ▲알자 : 裴周泰
- ▲찬인 : 禹鍾禧 ▲찬장 : 洪在植
- ▲장생 : 崔東漢 ▲봉향 : 南基煥
- ▲봉로 : 朴 淸 ▲사준 : 潘在赫
- ▲봉작 : 都鍾九 ▲진작 : 李承石
- ▲진설 : 禹克基 ▲칠기 : 李秉敬
- ▲학생 : 具本旭 全圭烈 全在運

시조공 단소 한식다례 봉행 4월 6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천장산 기슭 명당



◇ 시조공 단소 한식다례 봉행 광경

시조 환성군 단소에서 서울 인근 거주 고문, 이사등 원로 2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공의 높은 음덕을 기리며 한식 다례제를 정중하게 올렸다.

이른 봄 안개 자욱한 사이로 노란

개나리꽃 웃음짓는 섭씨 10°의 따뜻한 날씨에 載範의장의 헌작으로 제례를 올리고 송인재 재실에서 음복을 나누며 시조공의 공덕과 중친회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秋 享 案 內

참례시 도포와 유건을 착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서울 송인재 시조 환성군 시향

양력 10월 3일(일요일)

백제 개국 10제 공신 중 한분이신 우리 시조 환성군(휘 聶) 시향을 10월 3일(일:개천절)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천장산 단소에서 우리 중앙중친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착오없이 모두 참례하여 경건하게 봉행합니다.

■ 정선 서운재 정선군 시향

양력 10월 22일(금) 오전 11시

시조 환성군의 8세손으로 신라 성덕왕때 정선군에 수봉된 우리의 중시조(휘: 楨)시향을 음 9월 15일[양력 10월 22일(금)] 강원도 정선 정선지구 중친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모두 참례하여 경건하게 봉행합니다.

■ 대구 한천서원 추계향사

양력 10월 31일(일) 오전 11시

고려 개국공신이신 이충공(충렬공: 以甲·충강공: 義甲)의 추향을 정선군 시향후 두번째 일요일인 10월 31일에 대구지구 중친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모두 참례하여 경건하게 봉행합니다.

목담서원 춘향제 봉행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서



◇ 목담서원 춘향제 봉행 광경

지난 4월 27일(화) 음력 3월 중정 오전 11시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소재한 목담서원 영당에서 비내리는 천막 아래에서 60여명의 유림과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전씨 판서공파가 주관하는 유림 행사에 全宗夏 집례의 홀기에 따라 정중하게 봉행되었다.

제관들은 옥천전씨 판서공파에서 준비한 유건을 쓰고 엄숙하게 참여하였으며 중앙중친회에서는 全遇學 상근부회장이 참여하였고 주관처인 옥천전씨 판서공파 중회에서는 수건과 목담서원

전말기등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목담 영당은 옥천과 득관조인 관성군(휘 侑)을 주벽으로 좌우에 송정공(휘 彭齡), 사서공(휘 湜)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집사 분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 宋明善(옥천군부군수)
- ▲아헌관 : 庾務鉉(옥천향교 전교)
- ▲중헌관 : 李康鍾(옥천유림회장)
- ▲집례 : 全宗夏
- ▲축 : 全安元
- ▲알자 : 全免夏

全氏회관 옥상 방수공사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전씨회관이 건축 20여년 경과로 인한 건물 노후 및 누수 부분 방수 공사를 지난 4월 5일부터 10여일간 실시하였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소재 나노산업

개발(주) 대표이사 김태완은 우레탄 방수공사, 외단열 공사, 외부창호 코팅 공사등을 11,940,000원(부가세 별도)에 완벽하게 보수하였으며 하자 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였다.

宗 論

“발전기금과 종보 구독성금이
종친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종친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중앙종친회는 발전과 중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종인과 각파대중회, 지구종친회와 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더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종인과 임원여러분의 발전성금과 종보구독 성금이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사오니 종보구독 성금과 발전기금 헌성에 최대의 성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종인과 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하동 재개발로 인한 회관 매각에 따른 청량리 전씨회관으로 이전시(대지: 152평, 건평: 663평, 지상6층 지하2층) 큰 건물 매입으로 인한 대출금 10억원 상환을 위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금운동 전개를 통한 종인의 성금 236,850,000원과 이문동 도로 보상금 및 종친회의 건축재정 운영을 통한 변재로 2010년 3월말 현재 채무 잔액이 90,000,000원인바 하루 속히 변제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큰 협조 있었으면 하는 간곡한 심정

입니다.

현재 청량리 全氏회관은 청량리 균형발전 추진지구로 지정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소재한 매머드 우리전씨회관도 각광을 받아 30억 이상이 상승호가되고 있음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59차 대의원 총회에서 미납 임원들에게 서신 연락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결의된 바 있어 지난 4월 중순 개인별로 부탁(촉구) 드린바 있었으나 별 진전이 없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제9기 임원회에서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고 빚없는 종친회를 차기에 넘겨줄 수 있게 되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종인 여러분! 임원여러분! 각파 대중회원 여러분! 각지구 종친회원 여러분!

선조는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후손은 선조의 유훈으로 살아간다는 신념으로 내가 낸 발전기금과 종보성금으로 우리 문중이 발전한다는 것을 되새겨 봅시다.

감사합니다.

● 기초 단체장 당선자 ●

지난 6월 2일 민선 제5기 지방선거에서 기초 단체장으로 당선된 종인의 노고를 경하 하오며 전 종인의 뜻을 모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큰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



全周彦(무소속)
광주직할시 서구구청장



全完俊(무소속)
전라남도 화순군 군수



全昌範(한나라)
강원도 양구군 군수

원로종인예방

경인년(2010) 全氏중앙종친회 신년기획 II 항 종친단합을 위한 화합책의 일환으로 특히 지난날 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분의 예방을 통해 후배들이 예절을 갖추고 선배 종인의 공로를 찬양하여 흐뭇한 종친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 道植의장 병문안



지난 4월 6일(화) 오후 2시경 永鐸회장님을 모시고 載範의장, 遇學상근부회장, 台永, 進變대의원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대명요양원 608호에 입원 가료중인 道植의장을 위문 방문하였다.

道植의장은 몸이 불편하실뿐 88세의 노령에 정신은 깨끗하고 기억력은 좋으셔서 가족등 가정이야기와 지난날의 종친회 대의원회 의장6년 경력과 종사 발전에 기여한 이야기등 환담하는 시간을 보냈다.

▣ 珠植회장 병문안



지난 4월 14일 수요일 오후2시경 敬遇고문을 모시고 遇學상근부회장, 台永간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두산위브 아파트 101동 1802호 회장 자택을 방문 위문하였다.

珠植회장은 건강이 썩 좋지는 않으나 85세의 노령에 대화를 나누고 지난날 회장 6년 동안의 이야기와 제3차 전씨대동보 편찬에 기여한 공로 이야기등으로 환담하였다. 모쪼록 쾌유를 빌며 그분의 지난날의 공로를 되새겨본다.

▣ 在祐부회장 병문안



지난 2월 26일(금요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아산병원에 입원중인 부회장을 濟國사무국장이 위문하였다.

종친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종사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85세의 노령에 허리 수술을 하여 많은 회복은 되었으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쾌유를 빈다.

한자공부 (4)

“한자 공부는 국어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사고력 신장, 인성 및 문화정체성의 바탕이 된다.”

四字成語(四字成語)

- 25 搖之不動 흔들어도 끄떡하지 아니함.
요 지 부 동 흔들 요, 갈 지, 아니 불, 움직일 동
- 26 束手無策 손을 묶은것 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속 수 무 책 끄떡 못함.
묶을 속, 손 수, 없을 무, 꾀 책
- 27 臨戰無退 세속 오계의 하나. 싸움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임 전 무 퇴 않음을 이름.
임할 임, 싸움 전, 없을 무, 물러갈 퇴
- 28 降者不殺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지 아니함.
항 자 불 살 항복할 항, 놔 자, 아닐 불, 죽일 살
- 29 有口無言 입은 있으나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유 구 무 언 말이 없음.
있을 유, 입 구, 없을 무, 말씀 언
- 30 家家戶戶 집집마다.
가 가 호 호 집 가, 집 가, 집 호, 집 호
- 31 乘勝長驅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
승 승 장 구 칩.
탈 승, 이길 승, 긴 장, 몰 구
- 32 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
난 신 적 자 치는 자식.
어지러울 난, 신하 신, 도둑 적, 아들 자

宗親會 발전기금 헌성

- ▲ 회장단 : 100만원 이상
- ▲ 의장단 : 50만원 이상
- ▲ 이 사 : 50만원 이상
- ▲ 대의원 : 10만원 이상
- ▲ 감 사 : 50만원 이상
- ▲ 종인, 각파대중회, 지구종친회 : 성금액
- ▲ 종보구독성금 : 종인 성금액
- ▲ 촉발전광고금액 : 종인 성금액

※ 계좌번호

종보성금 : 1006-701-243917
발전기금 : 1006-301-225668
광고성금 : 1006-901-225672
- 우리은행(예금주 : 전영탁)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



세계의 유일하고 최초의 “효”테마 뿌리 공원에서 효와 성씨를 주제로 나의 뿌리를 찾아보고 조상의 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행사인 제2회 효문화 뿌리 축제를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봄날씨 영산홍이 만개한 뿌리 공원에서 지난 4월 17일 136개 문중 만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고 대전시 중구청 문화원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문중별로 성씨기를 선두로 전국 136개 문중의 웅장한 퍼레이드에 우리 손씨는 17번째로 손씨기를 앞세우고 종인 20여명이 참석 입장하였다.(서울 6명, 대구 5명, 대전 10여명)

전국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은 손성환 중구청장이 개원 당시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공원이다.

도심속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

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의 산 교육장이다.

136개의 각 성씨 조형물이 있으며 전면에는 조상의 유래와 뒷면에는 작품 설명이 되어있다.

4월 17일 개관한 한국족보 박물관에는 전국 문중에서 기증한 족보등 사료를 전시 조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종친간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이날의 개막 행사는 09시 50분 개전의 물소리를 시작으로 문중 퍼레이드(136문중) 주제 영상 상영, 내빈소개, 개막선언, 개막인사 순으로 개최되고 11시반경 족보 박물관으로 이동 개관식이 거행되고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주제 행사로서 문중문화 체험관 및 효문화 전시관 체험등과 특별행사(한국의 뿌리 멀티미디어실등) 체험행사(대장간 체험등) 다양한 행사가 4월 18일 까지 2일간 민족의 뿌리, 민중의 뿌리 효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국 족보 박물관 개관 대전 뿌리공원에서 “효문화 메카”로



대전시 중구청에서 작년 6월 2일 기공한 족보 박물관이 지난 4월 17일 개관되었다.

개막식은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 후 효문화 뿌리 축제의 소중함과 가치를 담은 주제 영상물이 2분간 상영된 후 문중대표 및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뿌리문중 협의회장의 개막선언 및 김보성 축

제추진위원장의 개막인사와 중구청장의 환영사, 대전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효와 뿌리의 계승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참여속에 고문서 기증과 문의가 쇄도한 가운데 전국 130여개 문중과 시민들이 2,000여점에 달하는 족보등 고문서를 기증해 명실 상부한 효문화 중심지가 되고 있다.

新刊紹介

■ 謙牧契小史(겸목계소사) 全龍採 발행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그 선조에게 아름다운 점이 없는데도 칭송한다면 거짓이다. 훌륭한 점이 있는데도 후손들이 모른다면 밝지 못한 것이고,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질지 못한 것이다.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 밝지 못한 것, 어질지 못한 것은 군자(君子)다운 사람이 부끄러워 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오산공(吾山公)은 학문이 깊고 문장에도 능해 문집 오산집(吾山集)을 남겼으며 3백여명의 제자들을 양성하여 전통 한학(漢學)이 후세에 전승되어 그 제자들이 오산공 생시의 학덕을 기리는 겸목계(謙牧契)를 결성하고 사후에는 매년 작헌례(爵獻禮)를 거행하고 있다.

이에 겸목계안을 주로 하고 겸목계 임사록, 작헌례를 참향록 등을 합쳐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선친의 은공을 기리며 번역 발행하였다.

바른말 고운말 시리즈 1

시집간다와 장가든다 아버지와 아버님

▶▶▶ 시집간다와 장가든다

여자가 혼인하여 출가하는 것을 “시집간다”고 한다. “간다”에는 ‘돌아가지 않는다(去)’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갔다’는 것은 영원히 시집 사람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남자는 ‘장가 간다’고 하지 않고 ‘장가 든다’고 해야 맞는다. 여자처럼 출가하는 것이 아닌 까닭

이다. 장가는 한자 어원이 소멸되어 고유어 같이 되었지만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丈人), 어머니를 장모(丈母)라고 하듯 처갓집을 말하는 장가(丈家)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장가간다’는 말은 남자의 출가를 말하며 곧 데

릴사위로 친가를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남자가 출가하는 경우는 세가지 뿐이다. 승려나 신부가 되기 위해 집을 나서든가, 양아들로 입적할 때, 아니면 데릴사위 뿐이다.

남자가 잘 모르고 장가간다고 하면 곧 데릴사위로 간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 아버지와 아버님

친어머니처럼 친아버지도 한 분 밖에 없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호칭도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요즘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장인, 장모도 친부와 동등하게 대접한다는 뜻으로 아내의 아버지를 ‘아버지’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 예절에서는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 ‘장인 어른’, ‘빙부’, ‘빙장’ 등으로 불렀고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 ‘장모님’, ‘빙모님’으로 호칭했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다.

예절도 시절 따라 간다고 호칭도 크게 달라지고 있으나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님’자를 붙이듯 사위도 장인을 ‘아버님’ 장모를 ‘어머님’ 이라고 할 수 있되 한 분 밖에 없는 ‘아버지’나 ‘어머니’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結婚

◇ 全元遇 씨의 장남 형준(炯俊) 군이 지난 6월 12일(토) 오후 1시 출신교인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2층 무궁화 홀에서 미국 텍사스주

A&M 대학교 박사 과정의 동문 고한영 양과 우리 종친회 遇學 상근 부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백년가약의 예를 올렸다.

訃音

◇ 全秉哲 애국지사 별세



중앙종친회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秉哲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12일(토) 오전

10시 주례보훈병원에 입원 가료중 별세 하셨으며 빈소는 부산 주례보훈병원 영안실 203호실이다.

고인은 1944년 부산 제2상업학교 재학중 울산비행장 근로 작업에 동원되자 파업을 주도했고 학우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하지 말것을 권유하다 이듬해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로 6월 15일 오전 7시 발인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조기를 보내고 조문하였다.

清白吏 顯祖錄 청백리 현조록

성군관 유도회에서 청백리 열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백리 문중 및 사학자들과 협조 체계로 선현들의 행적을 정립한다.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에 옛 선현들의 청백하고 검소했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여 모든 국민이 읽고 오늘날 비리와 부정 부패로 얼룩진 한국병을 치유하고 한국학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문중의 청백리 현조록을 발굴 제시한다.

다음에 발굴된 우리 문중 청백리 현조록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 할 것을 기약하며 열전의 현조록을 옮긴다.

번호	姓名	派名	清白吏 내용 약기(略記)
1	全舜仁 ·字元卿	旌善	1519년 문과급제. 승문원 교리, 사헌부 지평, 서장관으로 명나라 사신과견 공로로 임금으로부터 金鑄象形, 香爐, 金錢紙 등 下賜. 淸風, 豐川, 旌善縣監, 原州, 忠州 郡守 역임. 주민들이 善政碑 成均館 司成, 春秋館 編修館 軍資監正 역임.
2	全三達 ·字君炯 ·號穎阜亭	龍宮	1592년 임진왜란시 왜적을 격퇴 공으로 訓練主簿. 1599년 무과에 급제. 1613년 宣武原從功臣, 慶尙道 水軍節度使, 軍器事. 1615년 折衝將軍 長興 永興府使, 黃海道 兵馬節度兼黃州牧使, 咸平 黃海 等 水軍節度使 金海에 善政碑.
3	全以性 ·字性之 ·號雲溪	龍宮	1606년 문과 급제. 宗簿僉正, 春秋館 編修館, 新寧 等 3部縣監, 富川府使, 固城縣監, 富川府使 善政을 베풀어 去思碑,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역임.
4	全聖臣 ·字仲輔	羅州	1705년 文科급제. 成均館 典籍, 績城 楊州兵馬節度 尉
5	全彭齡 ·字淑老 ·號松亭	沃川	1502년~1508년 賢良科 合格, 端川郡守, 密陽府使, 安東府使, 嘉善大夫禮曹參議, 江原觀察使 등 역임. 清白吏 10人中 1人
6	全益禧 ·字子綬 ·號雪月堂	沃川	1624년 文科급제. 成均館 典籍, 禮曹佐郎, 正郎, 康津縣監, 兵曹正郎, 春秋館 記注館, 司憲府持平, 咸鏡道都事 역임. 1653년 長興府使, 善山府使, 鳳山縣監 長興府使 清白吏 名聲 높았다.
7	全命龍 ·字伯俞 ·號穎西	沃川	1624년 生員試 합격, 1633년 成均館 博士, 禮曹佐郎, 平壤庶尹, 寧海府使, 工曹正郎, 參判, 司憲府 大司憲 등 역임. 善政으로 頌德碑. 方山書院, 虎溪書院, 鳳陽書院
8	全百祿 ·字天綬	黃澗	1664년 武科급제, 訓練院正 穩城의 9個郡 中軍 忠淸道 水軍節度使, 禁軍中樞 副總監 黃海 水軍兵馬節度使 역임. 淸德善政碑 및 善政 頌德碑 세움. 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五衛 都總府 副總監
9	全聖準 ·字仲式	羅城	1681년 文科급제. 兵曹佐郎, 外職, 康寧縣監 憂國爲民 정신으로 청렴 一貫 善政하여 頌德碑세워짐.
10	全近思 ·字而遠 ·號竹林	龍宮	1775년 文科 甲科 장원급제. 兵曹正郎, 固城 稷山縣監, 禮曹正郎 등 역임. 固城縣監時 善政을 베풀어 士林에서 추앙을 받아 清白吏로 善政碑 세워짐.

우리 선조의 유적

沙西 全滉의 생애와 업적

선생은 1563년(명종 18)~1642(인조 20)까지 향년 80세를 일기로 한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본관(本貫)은 옥천(沃川)이며, 시호(諡號)는 충간공(忠簡公), 자(字)는 정원(淨遠), 호(號)는 단우(段郵)·병천(屏川)·안호(雁湖)였으나 늘그막에 사벌국(沙伐國)의 서쪽에 산다는 뜻으로 사서(沙西)라 하였다.



전씨 시조인 섬(聶)은 백제 건국왕인 온조왕을 보좌한 10명중의 한 사람으로 환성군(歡城君)에 봉해졌다.

전식 선생은 1589년(선조 22, 26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군(창의군, 함창을 중심으로 은척의 황령사에서 거병)의 좌막과 군량유사로서 활약한 공으로 1593년 우의정 김응남(金應南)의 추천을 받아 연원도 찰방(종5품)이 되었다. 1603년(40세)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07년 전직·예조좌랑과 정랑을 거쳐 1611년 울산판관이 되어 전라도 도사(都事)를 거쳤으나 광해군의 폭정에 벼슬을 그만 두었으며, 후일 다시 벼슬길에 올라 이조참의·대사간·부제학이 되었으며, 사후에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아들 규천(虬川), 극항(克恒)이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하여 그 원종의 공으로 좌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전식은 학문과 학업이 당세에 추중(推重) 되었으며,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함에 정성을 다하여 의리를 명석하니 임숙영(任淑英)이 “경연관(經筵官)으로 고금을 통달하는 데는 정경세(鄭經世)이고, 사리(事理)에 통달하는 데는 전식(全滉)이라” 하였다. 또한 집이 가난하여 부모모양이 어려워 아침저녁마다 앞내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밖에서 구하는 음식이 있으면 모두 부모님께 갖다드리는 등 효성이 극진하였다 한다.

또한 광해(光海) 무신(戊申)년 간의 포악무도함과 정인홍의 포악한 무리당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설변을 토하여 고귀한 선비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6가지 조목을 들어 1627년(仁祖 5) 4월에 임금의 마음가짐의 근본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사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니 바로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병자호란 뒤 중국에 사신(조선 사신으로는 마지막)으로 가다가 요동길에 막혀 항해로 만리길을 가는데, 홀연 풍파가 있어 배가 위험해져 모두 정신을 잃었으나 공은 배 가운데 앉아 시를 읊으니 조금 있다가 두 마리의 대추어(大鯪魚)가 나와서 양쪽으로 배를 끼고 육지 가까이 온 후에 돌아가니 모두 신조(神助)라고 생각했다 한다. 중국 조정에서는 유덕재상(有德宰相)이라 칭송하였고, 중국의 사씨(史氏)는 조선사신 전식이 항해래조(航海來朝)라 특서하였는데, 이 사실은 이윤경(李潤慶) 가흥록(嘉隆錄)에 이름이 올랐다.

학맥(學脈)은 영남학파로서, 서애 류성룡, 여헌 장현광의 문인으로서,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창석(蒼石)·이준(李峻)과 더불어 향리에서는 상산삼노(商山三老)라 불리면서 향토 학문에 꽃을 피웠다고 한다.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옥동서원(玉洞書院)과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검암리 목담서원(鶯譚書院)에 봉향되었고, 외서면 관동리 사당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신도비 외에는 9권 4책의 목활자본인 시문집과 영정, 교지등의 유품이 전해져 오고 있다.

시문집은 1862년(哲宗 13) 7대손 중현이 편집 간행하였으며, 규장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영정(影幀)도 2점이 전해진다. 1점은 목담서원에 있는데, 길이 136cm, 폭 92cm로 충북 지방유형문화재 171호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1점은 길이 200cm, 폭 90cm로 중손 전상용(全相龍)이 상주에서 소장하고 있다. 지정된 영정보다 보관상태가 훨씬 좋아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宗親會 발전기금 헌성 감사합니다 <18>

금번 종친회 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따른 종친회의 중흥과 재도약의 기반 조성을 위한 높은 뜻에서 보내주신 헌성금에 깊이 감사드리며 누수없이 잘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301-225668
예금주 : 전씨중앙종친회장 전영탁

헌성내용

단위: 원

년 월 일	성 명	금 액	비 고
10. 3.23	전 태 영	100,000	대의원회 간사
3.31	전 영모 (정선)	100,000	대 의 원
4. 9	전 순 익	100,000	"
4.24	전 춘 석	100,000	"
4.27	전 계 선	100,000	관 리 과 장
5. 3	전 길 순	100,000	인천지구 종친회장
5.13	전 규 환	100,000	대 의 원
6. 9	전 정 원	1,000,000	"
6.10	전 제 국	500,000	사 무 국 장
계		2,200,000	

종보 성금 감사합니다 <11>

종친들께서 보내주신 구독료는 보다 나은 종보 제작에 활용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바랍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701-243917
예금주 : 전씨중앙종친회장 전영탁
납입장소 : 전국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납창구

구독성금내용

단위: 만원

성 명	금액	입 금 은 행	성 명	금액	입 금 은 행
전 호 민	2	농 협	전 달 재	3	농 협
전 부 형	3	문래동 기업은행	전 병 열	5	대 구
전 부 형	5	수원 우체국	전 낙 한	5	우 체 국
전 동 원	5	국 민 은 행	전 양 일	3	농 협
전 상 홍	5	우 리 은 행	전 석 주	3	"
전 영 탁	20	회 장	전 남 표	10	"
전 우 석	5	영 주 농 협	전 영 준	3	"
전 형 팔	5	농 협	전 수 일	3	우 체 국
전 상 수	10	세 무 사	전 병 인	10	농 협
전 순 익	5	우 리 은 행	전 정 근	3	국 민 은 행
전 상 용	10	우 체 국	전 우 학	10	상 근 부 회 장
전 인 재	3	농 협	전 영 준	5	우 리 은 행
전 경 수	3	"	전 병 숙	3	새 마 을
전 하 수	3	"	전 상 택	1	농 협
전 중 국	3	"	전 상 효	3	신 한 은 행
전 규 원	3	"	전 중 원	3	농 협
전 중 환	3	"	전 무 종	5	영 주 우 체 국
전 병 규	3	새 마 을	전 영 선	5	우 체 국
전 영 조	1	제 일 은 행	성산백파	1	고 령 새 마 을
경주종친회	10	우 체 국	전 용 일	20	우 리 은 행
경주장년회	10	"	전 윤 호	10	주 안
경주청년회	10	"	전 병 규	10	우 리 은 행
전 용 운	3	농 협	전 동 섭	1	강 릉 우 체 국
전 을 흥	3	새 마 을	전 병 규	3	경북성주우체국
전 택 병	10	농 협	전 주 식	20	고 문
전 태 근	5	"	계		296

중앙종친회 중요업무일지

2010년 상반기

- 1월 1일 전두환 대통령 신년 하례 인사차 방문
- 1월 4일 시무식
- 1월 8일 경인년 중앙종친회 중요 업무계획 (신년기획)
- 1월 11일 전진구 박사 저서5권 기증 (건설관계 서적)
- 1월 18일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산수연 참석 (永鐸회장, 遇學상근부회장, 載範의장, 濟國사무국장)
- 1월 21일 종장 (Badge) 제작 보급 (1,000개)
- 2월 1일 신년축하 광고 성금 (종보 제80호) 강릉지구 종친회 (전찬탁), 정선전씨 대중중 (전창중) 영주지구 종친회 (전동호), 경기동부지구종친회 (전중섭) 중앙종친회 부회장 (전석준)
- 2월 9일 회관6층 임대계약 체결 (교회)
- 2월 10일 고문 구정인사 중앙종친회 재산 등기서류 정비
- 2월 12일 회관 옥외광고 "全氏會館"기간 연장승인 (2010. 2. 05~2012. 12. 07)
- 2월 17일 혈압기 구입
- 2월 22일 지하1층 임대계약
- 2월 23일 직원 보수 미지급금 지급 (18,424,000원)
- 2월 24일 1층 상수도 인입선 누수 수리
- 2월 26일 강릉향교 전교 全燦鐸 취임식 참석 (濟國사무국장) 전재우 고문 문병
- 3월 2일 승강기 점검 우리 종중 청백리 10명 성균관에 통보
- 3월 3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東明, 同大감사)
- 3월 10일 2009년도 제29기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 3월 15일 전씨종보 제80호 결재차 회장택 방문
- 3월 17일 제9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3월 23일 전씨종보 제80호 편집완료 인쇄회부
- 3월 25일 옥상변압기 절연유 교체작업
- 3월 29일 전씨종보 제80호 발행 (4,000부)
- 3월 30일 제59차 대의원회 개최 (제29기 결산승인)
- 3월 31일 발전성금 미납 임원에 독촉장 발송 (대의원회 결의)
- 4월 2일 전씨회관 방수공사 (나노산업개발)
- 4월 6일 시조공 한식다례제 봉행 와병중인 원로위문 (道植) 의장 (永鐸회장, 載範의장, 遇學상근부회장, 台永, 進燮대의원)
- 4월 12일 합천지구 종친회 총회참석 (濟國사무국장)
- 4월 14일 와병중인 원로위문 (珠植회장) (敬遇고문, 遇學상근부회장, 台永대의원)
- 4월 17일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참석 (대전 중구청) (載範의장, 遇學상근부회장, 濟國사무국장, 桂先과장대전지구 종친회원)
- 4월 19일 뿌리공원 "전씨조형물" 보수견적
- 4월 23일 대구 "한천서원" 춘향제 봉행 (遇學상근부회장 참례)
- 4월 27일 옥천 "목담서원" 춘향제 봉행 (遇學상근부회장 참례)
- 5월 12일 제4차 대동보 편찬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11명
- 5월 24일 제4차 대동보 편찬 준비위원회 개최 (위원장 全龍塚, 간사 全進燮)
- 5월 25일 전씨회관 "금연지정건물" 통고 금연구역 표찰게시 (보건소)
- 5월 29일 대구지구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遇學 상근부회장 참석) 전씨회관 정화조 청소
- 5월 31일 제4차 대동보 편찬 준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6월 4일 민선 제5기 지방선거 당선자에 축전. (광주 서구 구청장 全周彦, 전남 화순군 군수 全完俊, 강원도 양구군 군수 全昌範)
- 6월 8일 전씨종보 제81호 초안 편집 정리
- 6월 28일 전씨종보 제81호 발행 (4,000부)

宗約五大綱領

- 上奉祖先 :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 下育後生 : 아래로는 후생을 기르며
- 相互親睦 : 서로 화합 친목하고
- 不計其功 : 그 공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며
- 不謀其利 :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宗務指標

- 和合團結 : 화동하여 한데 뭉치고
- 信賴造成 : 서로 믿음을 이루며
- 言行一致 : 말과 행동이 같이 거짓없이
- 親切奉仕 : 정답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지구종친회 소식

예천지구 종친회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예천지구 종친회는 지난 3월 15일 회원 80여 명이 2대의 버스 편으로 우천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중시조 정선군 묘소를 참배하고 서운재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결산보고 및 장학금(안동대학교 1

학년 전재호) 50만원을 지급하고 임원을 개선했으나 회장 全炳烈은 중임되고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 장: 병렬
▲수석부회장: 재덕
▲부회장: 이하, 상원, 재인, 영섭, 부화, 성표
▲사무국장: 표욱
▲감 사: 운학, 석호

청도지구 종친회 시조공 단소 참배



◇ 청도지구 종친회 시조공 단소 참배

지난 5월 1일(토) 오후 2시 경상북도 청도지구 종친회에서는 25명의 회원이 버스를 대절하여

全相錫 회장의 인솔하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구 천장산 아래 시조공 환성군 단소를 참배하였다.

대구지구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 대구지구 종친회 정기총회 광경

지난 5월 29일(토요일) 오전 11시 대구지구 종친회는 녹음 길은 싱그러운 5월의 하늘 아래 우리의 선조 고려 개국공신인 二忠公이 격전을 벌이다 순직한 동수 대전의 격전지 대구 시립공원 팔공산 기슭 이충공의 순절비 앞 별천지 식당에서 150여명의 회원과 중앙종친회 遇學상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의거 任孝 회장은 많은 종인의 협조를 기대하며 충열공 순절비 주변 정리 및 한천서원 정비에 기여하였으므로 한천서원 동서재 건축에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遇學 상근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제4차 전씨 대동보 편찬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발전기금 헌성 및 중보 구독료 납부 및 우리 종약의 상징인 종장(Badge)의 패용을 권장하였다. 이어서 감사 및 결산보고와 신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원 개선에 들어가 이사회에서 결의된 현 임원 재선출을 승인하고 중식을 마치고 여흥에 들어갔다.
<임원 명단>
▲고 문: 柄用, 炳憲, 祥鎬, 茂一
▲회 장: 任孝
▲부 회 장: 炫洙, 圭一, 原烈, 鎬京
▲감 사: 佑烈, 昌鍾
▲사무국장: 炳俊

문경지구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 문경지구 종친회 정기총회 광경

문경지구 종친회는 지난 4월 23일(금) 오전 11시 경상북도 점촌시 점촌읍 소재 나나예식장에서 8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용궁전씨 대종회 全在道 회장과 영주와 예천 지구 종친회장의

참석 격려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과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모두 단합하여 우리 종친회의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봉화지구 종친회 개최

지난 4월13일(화) 오전 11시 봉화지구 종친회에서는 6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읍 내성리 소재 은하 식당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개선 등 종친회 발전을 위한 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신임회장은 전우겸 씨가 만장 일치로 당선되었으며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용철, 학규, 경수
▲회장: 우겸
▲부회장: 순호, 갑경, 용



◇ 회장 전우겸

우, 옥이, 경희
▲사무국장: 형구
▲간 사: 우곤
▲이 사: 계우, 우제, 상호, 상택, 중래, 유근, 재걸, 경홍, 순철, 무중
▲감 사: 영창, 용구

玉山전씨 대종회 정기총회 개최



◇ 옥산전씨 대종회 광경

지난 5월 첫 일요일(2일)에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에 소재한 玉山전씨 특관조(玉山君 휘 永齡) 재실 학명재에서 대종회 정기총회가 15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炫洙 회장이 주관하여 진호 총무의 진행에

따라 전임 鳳璫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감사 및 결산 보고와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앙종친회에서 추진 중인 대동보 발간에 대한 준비와 중중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친회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종친동정

全仲潤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지난 5월 14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주)삼양식품 全仲潤(91세)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仲潤 회장은 라면 개발을 통해 1960년대 우리나라 식량난 해결에 공헌하고 기능성 식품과 쌀라면 등도 개발하여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으로 선임



국내 최초로 라면을 개발 보급한 창업주 全仲潤(91)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의 장남인 전인장(47)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全石煥 작곡가 천안함 추모가 작사 작곡



지난 3월 23일 21:23분 평택 제2함대 소속 천안함이 서해안 경비중 북한에 의해 폭파 침몰되어 산화한 46위의영현을 추모하여 지난 4월 25일 뜻을 생각하며 천안함 영웅들을 추모하여 “불음도”에서 “마음의 꽃다발”을 작사 작곡하였다.

石煥 작곡가는 우리 “쫄씨의 중가”를 작곡하였으며 “함대 출동가” 등 해군 관련 많은 작곡을 하며 4월 28일 14시 인천

상륙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폭침 안보결의 대회를 주관하는 등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 다.

全炳奎 원로 부인 전통식품 명인 지정받음



2010년 1월 4일자로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5-2 상촌 전통식품을 경영하는 權崎玉(全炳奎氏 부인 화가)여사가 ‘식품 산업 진흥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식품 명인 지정을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전병규 옹은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전 중앙종친회 고문을 역임하였

으며 종친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권기옥 여사